

석탑 삼부작의 완성, 다양성 속의 일치감 구현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 7

서관의 건축(1954~55; 1959~61)과 캠퍼스 석탑의 삼부구성

본관에 이어 도서관까지 준공한 보성전문은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전문학교로서 위용을 갖추게 됐다. 그리고 이에 더해 대운동장을 건설(1937~38)함으로써 이른바 '캠퍼스'라 불릴만한 외적 체계도 기틀을 잡아간다.

이 너른 공간은 본관 및 후일의 캠퍼스 정문을 가로지르는 방향 축의 중심이 됐으며, 그간 정리되지 못했던 캠퍼스 앞마당을 평정함으로써 언덕 위의 본관에 더 큰 품위를 부여했다. 여기에는 국제 규격에 따라 400m의 트랙필드와 140m의 직선 주로, 그리고 약 3만 명을 수용 가능한 잔디 스탠드가 갖춰졌는데, 베를린의 올림픽 스타디움을 모방한 것이라 한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땀을 때 인촌이 느꼈던 감격은 잘 알려져 있다.

20여년 걸려 완공된 서관 안암캠퍼스에 균형미 부여

하지만 안암의 캠퍼스는 아직 적절한 균형의미를 얻은 상태라 할 수 없었다. 1935년도 창립30주년 기념사업의 계획에서처럼(지난 호 보성전문 배치도 참조) 본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맞은편에 그 대응물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균형추가 놓이기까지는 20여년이라는 긴 시간이 더 필요했다. 1955년과 1961년, 두 단계에 걸쳐 서관이 완성될 때까지 말이다. 일제 말의 암울했던 시대상황이 당초의 계획을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방을 맞이하고 1946년 보성전문이 고려대학교로 승격된 후에도 한국전쟁이라는 커다란 참화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사이 대구 피난지에서 사용했던 임시교사 이야기나 서울 환도 직후의 중앙고등학교 터부살이에 대해서는 약하도록 하자.

이 건물이 서관(西館)으로 명명된 까닭은 본관의 서쪽(더 정확히 말하면 서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인데, 문과대학이 이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책을 뜻하는 서관(書館)을 의미하게 됐다. 본관과 도서관에서처럼 서관의 건축가 역시 박동진이었다.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그는 인촌의 요청으로 설계도를 마련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시멘트와 벽돌 등의 자재가 들어왔고 대지의 정리 작업도 완료됐는데, 전쟁의 발발

로 공사가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사가 재개된 시점은 고려대학교가 안암동으로 돌아온 지 3개월 가량이 지난 1954년 5월이었다. 그 이듬해가 창립50주년이니 서관 건축은 그 기념사업의 일환이 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 전체를 1년 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본관 쪽을 바라보는 남북방향의 날개부만을 먼저 완성시켜, 1955년 5월의 50주년 기념식에서 증정했다.

미려한 디자인의 시계탑

민족정신 일깨운 파랑새요

처음 완공된 부분은 단순한 직사각형 평면에 경사지붕을 가졌고, 전체 규모는 2층 1,370㎡(415평)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출함에도 불구하고 북단부로부터 변화하는 창호의 크기가 내부 공간의 다양성을 말해준다. 구조는 이전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석조와 철근콘크리트조의 혼합식을 채택했으며, 여기에 부속벽과 같은 소박한 고딕양식의 디테일이 외장으로 덧붙여졌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건물의 나머지 부분으로도 이어진다. 2단계 공사는 1959년 5월 시작해 2년 2개월만인 1961년 6월에 끝났다.

이로써 서관은 6층 석탑을 포함해 연면적 5,491㎡(1,664평)이 넘는 대형 건물이 된다. 건물 전체의 평면은 알파벳 E자를 닮았다. 대운동장을 바라보는 쪽이 정면이라고 하면, 그 뒤로 날개셋을 뻗어낸 모양새이며, 우측 끝



1955년 서관이 1단계 완공된 후의 안암캠퍼스 전경. 인촌은 1936년 손기정(보전상과28회) 교우 마라톤 우승을 차지한 베를린올림픽 스타디움과 닮은 대운동장을 건설(1937~38)했다.

의 날개가 1차로 완공된 부분과 결합했다. 1961년에 확충된 각 부분은 평지붕이라는 면은 같지만 서로 층고와 층수를 달리한다. 즉, 정면부와 우측 날개가 3층, 좌측 날개가 4층, 중앙 날개가 2



1961년 2단계 완공된 후의 서관. 건너편 도서관의 모습도 일부 보인다. 1992년에도 정면부 증축과 지붕 경사로 공사가 이뤄졌다.

층으로 건축된 것이다. 그 후 30여년이 지난 1992년에는 정면부를 4층으로 증축하고 지붕은 경사로 처리했는데, 결국 건물 전체 면적이 7,373㎡(2,230평)에 이르게 됐다.

다소 약화된 듯 했으나 서관이 본관이나 도서관과 동일한 석조 외장의 튜더풍 고딕양식을 띠고 있음은 이미 짐작 가능하다. 그러나 이 건물을 두 선배들과 크게 구별 짓는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동단부 6층 석탑 상부에 올린 시계탑이다. 이는 건너편 도서관 탑의 튜렛에 적절히 조응하면서도, 자체만의 미려한 디자인과 '시계'라는 기능으로 인해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허나 이 탑에 실제의 시계가 설치된 것은 1964년 여름의 일이다. 시계 자체가 고가였을 뿐만 아니라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등 기술



석탑 3부작 중 서관을 특징짓는 것은 시계탑이다. 1964년 설치된 시계탑은 김성곤 전 교우회장이 기증한 것으로, 매일 정오 울려 퍼지는 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는 안암동산에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촉매제다.

본관 좌우 서관과 도서관 석탑 삼부구성의 완성

하지만 서관 건축의 더 큰 의미는 이로써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가 본관을 중심으로 하는 좌우대칭의 '삼부구성'을 완성했다는 데에 있다. 게다가 너른 운동장이 고딕 석탑 실루엣의 전경을 이루며 비움의 공간을 제시한다. 이러한 구성은 강당 앞에 마당을 두고, 그 양쪽에 동재와 서재를 배치한 한국 전통의 교육기관인 서원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고려대학교 석탑의 삼부구성에서 더 눈여겨 볼 점은 도서관과 서관의 균형이 엄격한 대칭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변화와 다양성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다. 두 건물은 평면도 서로 다르거니와 각각의 탑이 마무리된 형식도 다르다. 앞서 봤듯, 도서관은 탑상단의 여장 및 모서리에 부착된 튜렛이 특징이며, 서관은 시계탑이 건물 전체의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탑들은 모두 본관을 바라보는 면의 모서리에 배치돼 이를 호위하

는 듯하다. 즉, 두 건물의 평면과 매스는 서로 간의 대응과 긴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본관의 중심성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같은 다양성 속의 일치(unity in diversity), 혹은 일치 속의 다양성(diversity in unity)은 약간의 일탈도 거부하는 엄격한 좌우대칭의 권위주의로부터 진일보한 것인데, 유사한 사례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 찾을 수 있다. 지난 호에 언급한 듀크대학의 도서관과 학생회관 역시 그 중 하나다. 이러한 가치는 단지 건축적 특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려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정신적 좌표를 제시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리라.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